

문협 소식

1. 5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LA 국제 심포지엄. 'LA 동포의 밤'에 참석차 엘에이에 온 백낙청 교수와 지난 5월 11일 Wilshire Grand Hotel 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정찬열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약 40명의 미주문인들이 참석했으며,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 그리고 백낙청 교수와의 추억들을 회상하는 순서들이 있었다. 강연회 같은 격식보다는 8년 만에 미주문인들과 백낙청 교수가 다시 만나 반가운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짧은 만남 속에서도 백 교수는 세계 속 한국문학의 위상, 통일 시대를 여는 해외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겨들 만한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2. 석정희 회원이 한국영농신문사에서 주최한 제4회 한국농촌문학상 공모에서 시부문 특별대상을 받았다.
3. 최미자 회원의 첫 수필집 『레몬향기처럼』이 발간되었다.
4.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는 김경용 회원이 지난 5월 그곳의 마운트 버논 나자렌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은퇴했다. 김 회원은 198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올바니)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그곳에서 2년을 가르쳤고, 1988년에 마운트 버논 나자렌 대학교로 옮겨온 이후 19년간 가르쳐왔다.
5. 한국수필가협회(회장: 이철호)가 6월 16일(토), 엘에이에 있는 Wilshire Grand Hotel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국의 수필가

-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본국과 미주문인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따뜻한 문우의 정을 나누었다.
6. 오연희 회원이 시집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빛이다』와 산문집 『시차 속으로』를 출간했다.
 7. 박영보 회원이 첫 수필집 『춘답 같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출간했다.
 8. 이 시대의 대표적인 담론 생산자이자 문화 비평가인 임현영 교수가 시토팡에서 강의했다. 6월 24일(일) 오후 5시 엘에이 소재 용궁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 날 발표된 강연 주제인 “노마드 시대의 한국문학”의 내용이 본 《미주문학》 가을호에 실렸다.
 9. 조옥동 회원의 『여름에 온 가을엽서』에 이은 두번째 시집 『내 삶의 절정을 만지고 싶다』가 출간됐다.
 10. 이윤희 회원이 미주 《한국일보》 28회 문예공모전에서 생활수기 부문에 입상했다.
 11. 원로 동화작가 남소희 선생님 부군되시는 원형두 노인신문 발행인이 7월 13일 별세했다.
 12. 최선호 회원의 PEN MISSION 강좌가 있었다. 7월 18일에 열린 이 강좌에서 최 시인은 문학작품을 통해 선교를 꿈꾸는 이들에게 창작실기론 강좌를 펼쳤다.
 13. 제20회 해변문학제가 7월 28일, Marina State Beach Park에서 열렸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미주 크리스천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재미수필가협회, 라디오 서울이 공동 주최했다.
 14. 오렌지 글사랑 모임(회장 정찬열)에서는 지난 7월 12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구월산 식당에서 40여 명의 회원과 문학동호인들이 모여 창립 1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용

진 시인의 “시인과 사랑”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고 한국에서 온 배경숙 시인과 장태숙 이사장의 축하 방문이 있었다.

15. 미주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황갑주 시인이 통일시집 『시인들이 쓴 통일 노래』를 출간했다. 황 시인은 이 시집에 통일을 염원하는 60여 편의 시를 담았다.
16. 미주문학 여름캠프가 8월 18일, 19일 양일간에 팜스프링 소재 〈미라클 스프링스 호텔 & 스파〉에서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본 《미주문학》 가을호에 실렸다.
17. 배희경 수필가, 이상태 시인, 장정자 시인의 문학서재가 개설됐다.

편집실에서 알립니다

1. 미주문학 가을호 신인상에는 해당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모작 가운데 7월 이후에 들어온 작품은 심사를 거쳐 겨울호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2. 《미주문학》 여름호 87쪽 윤종길 회원의 약력 중, “UPLI(국제계관시인연합) 창설자 및 초대회장”은 “Dr. Amado M. Yuzon/UPLI(국제계관시인연합) 창설자 및 초대회장”의 잘못임을 바로 잡습니다.
3. 《미주문학》 여름호 116쪽 한길수 회원의 약력 중, “《시와 사람들》 추천 당선”은 “《시와 시학》 추천 당선”의 잘못임을 바로 잡습니다.
4. 고 원 교수님의 연재강좌는 편집 사정상 이번호에는 쉽니다.
5. 조정권 시인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호부터는 정호승 시인이 시계간평을 맡아 수고하시겠습니다.

편집후기

- 이번호에는 매년 있는 여름 문학캠프와 오래곤 문학회 문단순례를 특집으로 엮었다. 문학캠프에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고원, 하길남, 송상옥 세 분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단순례를 위해 육고를 모으고 정리를 해주신 오래곤 문학회 회장 오정방 시인의 수고도 가슴에 남는다.
- 임현영 교수가 바쁜 미주방문 일정을 켜개 시토팅에 참석, 열강해주시고 그 강의록을 이번 호에 신도록 허락하셨다. 임 교수께서 보여준 미주문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미주문학 가을호를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미주문학〉 작품 수시로 받습니다

본지에 작품 게재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의 각 호 마감날짜를 참조하되, 석 달 만에 나오는 계간지임을 감안, 특정호의 마감에 구애됨이 없이 작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봄 호 1월 말 여름 호 4월 말
가을 호 7월 말 겨울 호 10월 말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주일 정도 늦출 수 있으나 미리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처: 협회 사서함

윤석훈 사무국장

hoond@s-hanmail.net

김영강 편집위원장

kaykim1211@gmail.com

성영라 편집간사

gianna408@hotmail.com

그 밖에 연락이 편한 협회 임원들.

(원고를 보내실 때는 꼭 사진과 약력을 동봉해주시시오.)

미주문학

2007년 가을호
통권 제 40호

저자·발행

website : www.mijumunhak.com

회 장 김동찬

이사장 장태수

편집위원 강치범 김영강 김영교 김인자

김혜령 성민희 오연희 윤석훈

윤휘운 이용우 정해정 최경희

최석봉 한길수

편집·제작 도서출판 청동거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9-4 동

영빌딩 내 Tel 02-584-9886~7

미주한국문인협회 연락처

Korean Literature Society of America

P.O.Box 761097

Los Angeles, CA 90076-1097

회 장(김동찬) (213)952-6730

e-mail soloktc@hanmail.net

사무국장(윤석훈) (213)605-3737

e-mail hoond@s-hanmail.net

미주한국문인협회

1982년 9월 2일 창립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록
등록번호 2980829
- 연방국세청 면세번호 20-8592467

계간 〈미주문학〉 통권 제40호(가을호)

2007년 9월 10일 발행

* 본지 게재 작품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US \$10.00

※ 본지 출판비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지원금이 사용되었습니다.